2018년11월 룸클럽에서 파트너로 처음만나 2021년 2월까지 상간녀를 만났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헤어져도 보았지만 다시금 만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처음 만난 룸에서 유부남인것도 알았고, 와이프를 너무 사랑한다는 말에 자신도 그런 사랑 받고 싶다고 먼저 세컨이어도 좋으니 만나자하는 것이 발단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중 와이프에서 카톡이 이상함을 들켜 상간녀에게 경고 아닌 경고가 들어갔고, 그것을 빌미로 헤어짐도 있어지만 다시금 또 만났습니다. 저 또한도 가정을 잃고 싶지 않았기에 몇번이고 헤어짐을 애기하고 헤어졌지만 나쁜것인지 알면서도 끝 맺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2남이 있습니다. 와이프에게는 잘 끝냈다 하고 와이프는 지금 현 상황을 잘 끝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도 그렇구요. 다만 제게 빌린 돈을 이제는 그냥 준돈이라 해서 갚지를 않아 상간녀 소송이라도 하여 얼마만이라도 회수하고 싶어 이렇게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상간녀를 만나면서 생활비를 준건 돌려받고자 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간녀가 피부샵을 차리면서 빌려간 돈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상간녀 소송밖에 없는듯 합니다. 와이프 모르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다시금 그 악몽을 안게 하고 싶지 않고 상세 내역 및 사진등 증거들을 보면 정신적 고통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을 받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작년 이맘때도 대여금소송을 진행하다가 취하하였습니다. 이유는 상간녀가 내용증명을 받고 다시 저에게 와 귀신 홀린 말들로 취하했거든요. 그때 무엇에 씌었는지 이혼하고 같이 살자 하는 말들에… 하지만 전 이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상간녀에게 들어간 돈이 1억 5천은 넘거든요. 상간녀 소송해봐야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그거라도 환수하려는 마음입니다.

물론 상간녀는 지금 와이프가 상간녀 소송 할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처음 들키고 나서 몇번 상간녀와 와이프가 문자로 티격 한적도 있고요.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서로 협박도 비하비 한 것 같습니다.

이체내역 및 모텔 영수증, 상간녀와 찍은 사진 등 모두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간녀는 상간 소송을 기다리고 있고..제가 진행하면서 와이프 모르게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잘못한 부분을 너무나 많기에 이런 것 마저 더는 괴롭힘을 주고 싶지 않기에.. 그럼 의견 부탁드립니다.